



호시우행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에게 인정받는 한 해가 되길

정재훈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회장



준 경하는 원자력계 여러분!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회장 정재훈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도 코로나19로 우리 모두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특히 원전산업계 종사자들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강도 높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느라 더 힘들었습니다. 원전산업계 종사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원자력산업계는 의미 있는 성과들을 거뒀습니다. UAE 바라카 1호기가 지난해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2호기는 8월 최초임계에 이어 9월 송전계통 연결에 성공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팀코리아 여러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은 무더운 열사의 땅에서 대한민국 원자력 역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새로운 원전 수주를 위해서도 힘을 모았습니다.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 참여를 위한 단독 협상자 지위를 확보하였고,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등에서도 차별화된 수주 전략을 통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원자력계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탄소중립의 효율적인 대안으로 혁신형 SMR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국회포럼 출범식 이후 SMR

예타신청서가 순항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산학연은 미래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SMR 시장을 어떻게 선점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한미 원자력 협력도 강화했습니다. 지난달 한미 원자력협력 워크숍을 열어 원자력사업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SMR 개발을 위한 양국 산업계의 실질적인 협력을 기대해봅니다.

원자력과 다른 분야의 접목을 통해 미래 원자력 분야도 개척하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원전 안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주, 해양, 핵융합 등 새로운 분야 개척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원자력계는 국민을 섬기고 소통하여 사랑과 신뢰의 마음을 얻도록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1972년 설립된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호시우행(虎視牛行), 호랑이와 같은 눈빛으로 소처럼 나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처럼 예리하게 판단하고 소처럼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호랑이의 눈으로 세계 원전 시장을 겨냥하고, 소처럼 끈기 있는 자세로 국민에게 인정받는 원자력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도 원자력계의 무한한 성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KIIF**